

■ 법률 칼럼

최근 이민 소식

1. 시민권 발급과 이름 변경 서류 규정 변경

(California USCIS에 규정하므로 타주에 계신 분들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 시에 이름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마치고 시민권 증서를 받을 때 법원에서 발급한 Name Change Petition(이름 변경 서류)이 시민권 증서 뒤에 붙어서 함께 발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민국의 발급 정책이 바뀌어 이름을 변경하는 분들이 Name Change Petition과 함께 시민권 증서를 받으려면 Judge Ceremony 라는 선서식에 참석해야 합니다.

일반 시민권 선서식(General Ceremony)은 시민권 인터뷰가 끝나고 바로 당일 선서식을 하고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변경된 경우는 반드시 Judge Ceremony에 참석해야 이름 변경 서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선서식과 달리 Judge Ceremony는 자주 잡히는 것이 아니어서 주의가 요망됩니다.

물론 당일 선서식이 judge ceremony가 될 수도 있으나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에 인터뷰 합격 후에 이민관에게 오늘 선서식이 judge ceremony인지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2. 이민 관련 제안 통과 실패

지난 11월3일에 민주당 하원 연방 예산안에 포함시킨 이민 관련 제안(proposal)은 2011년 1월1일 이전부터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해온 서류 미비자에게 5년씩 2번 임시 10년에 걸쳐 임시노동허가증을 발급해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이 상원에서 막혀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민주당 공화 양당의 이민개혁에 대한 극적인 타협이 없는 한 이민개혁 관련 입법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년은 미국 중간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중도층의 표를 의식한 민주당이 이민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민개혁 입법이 통과될 가능성을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3. 2022년 1월 이민 문호

2021년 12월과 마찬가지로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의 영주권 케이스는 내년 1월에도 오픈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가 결혼을 하는 경우 그 배우자는 영주권 청원서(I-130)와 신청서(I-485)를 모두 동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도 대기 기간 없이 바로 영주권 청원서(I-13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그리고 영주권자 미성년 자녀들은 접수를 서두르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업 3순위도 오픈 상태를 유지하여 편이 승인되면 바로 영주권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전 순위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 종교이민 청원서 승인 증가

최근 오랜 기간 동안 적체 상태를 보이고 있던 1-360이민 청원서가 승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처리 기간이 26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이민국은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2020년 초에 접수된 케이스들이 속속 승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 후 20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케이스도 승인되는 사례가 있어서 처리 속도가 개선되고 있는 징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교육

갈수록 입학하기 어려워지는 명문 대학들

아이비리그 대학을 비롯해 미국 명문 대학에 합격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들어 합격의 문을 통과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10년간의 입학관련 통계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어떤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제 아이보다 성적이 좋지 못했던 선배가 몇 년 전 000 대학에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도 무난히 합격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려 한다면 현실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거꾸로 내 아이보다 성적이 더 우수한 아이들도 불합격의 고배를 마시게 됐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2020년 기준, 미국 명문대 합격률은 10년 전과 비교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급격히 낮아졌다. 그만큼 미국 명문대 진학이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다. 몇몇 주요 대학들의 합격률 변화를 살펴보면 이런 사실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SCHOOL	2020 ADMIT RATE	2015 ADMIT RATE	2010 ADMIT RATE
Amherst College	11.8%	14.1%	15.3%
Bowdoin College	9.1%	14.8%	19.6%
Brown University	7.6%	8.7%	9.3%
Columbia University	6%	6%	9.44%
Cornell University	10.7%	15%	18.4%
Dartmouth College	9.2%	11%	11.7%
Harvard University	5%	5.6%	7.2%
MIT	7.2%	8.3%	10%
New York University	21%	33.4%	38%
Pomona College	8.6%	10.3%	14.7%
Princeton University	5.5%	7.1%	8.8%
Stanford University	5%	5%	7.3%
Swarthmore College	9%	12.5%	16.1%
University of Notre Dame	19%	19.8%	28.8%
Williams College	15.1%	17.6%	18.7%
Yale University	6.5%	6.7%	7.9%

▲ 2010년/2015년/2020년 합격률 출처: toptieradmissions.com

자료를 통해 명문 대학이라고 알려져 있는 대학들의 합격률이 매우 낮아진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희망하는 대학에 입학하려면 예전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나보다 성적이 낮았던 선배도 합격했는데……” 라고 안이하게 생각했다가는 불합격의 고배를 마시기 십상이다.

(더 많은 대학의 자료는 toptieradmissions.com/category/college-admissio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보다 성적이 낮았던 선배도 합격했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Home Remodeling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캐비닛
윈도우/ 지붕수리
전기/ 플러밍
각종 리모델링

작은일도 합니다!

Kim's Handyman
562.833.0766